

배포 2025. 12. 10.(수)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12. 11.(목) 06:00
(지 면) 2025. 12. 11.(목) 석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추진을 위해 교육계·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구성
- 첫 회의는 산학연 일체형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소 육성 방안 등 논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11일(목),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연내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이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안에 포함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과제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구성·운영한다. 총괄 분과는 교육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고, 세부 분과는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던 거점국립대-교육부 TF를 재편하였다.

* 특성화 연구대학, 인공지능(AI) 교육, 산학연협력·취창업, 글로벌 교육, 기초·보호학문

추진단은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정교화하고, 과제에 대한 추가 제안으로 방안의 완성도를 높인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을 보고 받고,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논의한다. ▲ 거점국립대 특성화 연구대학-연구소 설치 및 운영, ▲ 성장엔진

분야 대학-기업 공동 응용·융합 연구 수행, ▲ 학부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연계 지원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산학일체형 대학-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거점국립대에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여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

담당 부서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안주란 (044-203-6243)
		담당자	사무관	신태연 (044-203-6250)
			사무관	이현학 (044-203-6237)

□ **개요**

- (일시) '25. 12. 11.(목) 14:00 ~ 16:00
- (장소) 정부세종청사 14-2동 520호(대회의실)
- (참석자) 교육부, 추진단 총괄분과 위원 등 25명
 - (교육부) 장관, 차관, 인재정책실장, 지역인재정책관 등
 - (전문가) 총괄분과 소속 전문가 그룹

□ **논의 사항**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논의

□ **세부 순서(안)**

시각		내용	비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공개
14:05~14:10	'5	■ 인사말	
14:10~14:15	'5	■ 위촉장 수여	비공개
14:15~14:40	'25	■ 추진단 운영 방안(안) 보고('5)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보고('20)	
14:40~15:55	'75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00	'5	■ 마무리 발언	